

세라믹 金屬처리기술 開發

金星中央研, 세라믹과 금속接合 성공

세라믹 표면에 금속을 입혀 다른금속과 접합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세라믹금속처리기술이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金星社(대표 具滋學)는 金星 중앙연구소 朴廷浩박사팀이 세라믹소재의 응용에 핵심적 기초기술인 세라믹금속처리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세라믹의 표면에 열팽창계수가 같은 금속을 유기물과 혼합해 입힌 다음 加濕 수수속에서 섭씨 1천4백도정도의 고온으로 열처리하여 니켈도금공정과 매개금속접합공정을 거쳐 세라믹과 금속을 접합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첨단전자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세라믹을 실제 사용하는데 필요한 금속과의 접합이 가능하게돼 관련부품의 국산화는 물론 신소재분야의 기반기술향상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탁수신 合成기술 國産化

抗癌물질 탁솔生産가능

각종 암의 치료효과가 우수한 희귀抗癌물질인 탁솔(Taxol)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탁수신(Taxusin)의 합성기술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美 플로리다주립대 金炯伯위탁연구원을 중심으로한 연구팀은 탁솔의 Ring 구조를 포함하는 천연물질인 탁수신을 합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목나무 껍질에서 분리된 탁솔은 美국립암연구소의 실험결과 자궁암등 항암치료제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번에 탁수신 합성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희귀항암물질인 탁솔의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燃費시험서 最高기록

起亞 프라이드자동차

起亞産業(대표 金善弘)이 북미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프라이드(수출명 페스티바)가 美國 환경청에서 실시한 성능시험결과 시가지 주행 燃費 부문에서 39mpg을 나타내 에너지소비효율이 가장 뛰어난 자동차로 평가됐다.

珍島에 太陽光 발전소 설치

金星産電, 世代別 발전시스템 공급

金星産電(대표 李喜鍾)은 최근 전남 진도군 지산면 관내 2개도서와 조도면 관내 8개도서 등 모두 10개도서 120가구에 세대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번에 金星産電이 전남 진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전남 여천군 하화도에 설치한 집중식 태양광발전소와는 달리 각 가정에 태양전지판과 축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세대별로 사용전력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외딴가구라도 전선, 전신주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세대별 발전시스템인 것이 특징이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진도군 관내 10개도서는 그동안 디젤발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유류공급 등의 불편을 느껴왔으나 이번에 金星産電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金星産電은 이에따라 금년도에 1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도서 및 무인등대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완전 국산화하는 한편 최근 본격 판매에 들어간 솔라랜턴, 태양열 온수기 등 가정용 태양광기기의 제품 다양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